

비즈 프리즘 | 뜨거워지는 게임이용장에 질병코드 등재 논란

“게임이 뮌 죄”...90개 단체 공대위 결성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 한 목소리
미국·유럽 등도 WHO에 재고 촉구
복지부-문체부 대립...여론도 팽팽

게임업체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게임업체와 콘텐츠, 정보기술(ICT) 등 90개 단체로 구성된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대식을 갖고 향후 대응책을 내놨다. 이들은 공대위의 상설기구화와 함께 법적 대응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한 방탄하는 한편
국내외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범국민 운동

까지 전개할 방침이다. 공대위원장인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중앙대 교수)는 “젊은이들의 문화이며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불리는 게임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라는 자괴감을 느낀다”며 “공대위 발족을 계기로 다시 태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업체만 WHO의 결정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미국(ESA)과 캐나다(ESAC), 호주·뉴질랜드(IGEA), 유럽(ISFE), 남아공과 브라질 등 각국 게임산업협단체와 함께 WHO에 개정안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게임과몰입에 대한 질병코드 부여를 두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찬반 논쟁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 관련부처부터 각종 여론까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 부처의 경우 보건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발대식에서 애도사를 낭독하는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과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공대위원장), 정석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최요철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장. (왼쪽부터) 김병근 기자

복지부는 WHO의 결정이 발표된 직후 곧바로 국내 도입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게임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간부회의에서 “관계 부처들이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체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된다”며 향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여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찬성 45.1% 반대 36.1%)에선 도입 찬성이 조금 더 많았지만, 반대 69.5%인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에서도 “게임은 어느 정도 몰입할 수밖에 없는 취미생활로 게임 자체를 중독물질로 낙인찍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과 “스스로 제어를 하지 못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로 나뉘고 있다.

한편 WHO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을 통과시켰다.

김병근 기자 dionys@donga.com

비트코인 ‘1000만 원 안착’...들어가, 말아?

호재 속 선부른 투자 경계 분위기

암호화폐의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이 1년여 만에 1000만 원을 돌파하면서 투자 참여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활황을 맞을 거라는 기대감이 높지만 시장 변동성이 워낙 커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7일 오전 4시50분께 1002만5000원으로 1000만 원 벽을 넘는데 이어, 29일에는 낮동안 1030만 원대를 유지하며 1000만 원 선에 안착한 모습이다. 올 초 400만 원 아래에서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신규 투자자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이끌었다. 최근 페이스북, 나이키, 스타벅스,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이 암호화폐 결제시장에 진출하는 등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갈 곳 잃은 자금이 일시적으로 몰렸다는 분석



한 고객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암호화폐 거래업체의 시세 전광판에서 1000만 원을 돌파한 비트코인을 가리키고 있다. 뉴시스

도 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적어 일부 큰손이나 작전세력에 의한 인위적인 가격 부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부른 투자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현재 정부도 이런 시각에 동조하고 있다. 정부는 28일 긴급 시장 동향 점검에 나서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시세상승에 편승한 사기·다단계 등 불법행위는 검경 및 금융당국 등을 통해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시원한 맥주 축제 즐기” 홀플러스가 6월 26일까지 ‘세계맥주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국내·외 인기 맥주의 할인 판매는 물론 브랜드별 단독 기획팩 출시, 시음버스 운영, 맥물리에 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로 구성했다. 정정욱 기자·사진제공 | 홀플러스

SPC그룹 ‘행복한거북이’ 출범

SPC그룹은 사회적기업 ‘행복한거북이’를 공식 출범했다. ‘행복한거북이’는 SPC그룹이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 설립한 사회적기업이다. 지난해 5월 설립, 12월에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았고 고용노동부 심의를 거쳐 이번에 최종적으로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직원의 30% 이상을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으로 고용해야 한다.

행복한거북이의 주요 사업인 ‘행복한 베이커리&카페’에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서초구청, 인천공항 등 8개 매장에서 발달장애인 24명을 비롯한 40명이 정규직원으로 근무 중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경제

29일

코스피지수	2023.32	↓	-25.51
코스닥지수	691.47	↓	-11.29
日 닛케이 지수	2만1003.37	↓	-256.77
中 상하이 종합	2914.70	↑	+4.79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65		0
환율 (원·달러)	1194.50	↑	+5.0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9400.54	↑	+268.48

서울대병원장에 김연수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임기 3년



김연수 병원장

제18대 서울대병원장에 김연수 교수(55·신장내과)가 임명됐다. 임기는 31일부터 2022년 5월 30일까지 3년이며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장은 병원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연수 원장은 1963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의대 면역학교실 전임의를 거쳐 1999년부터 서울대의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서울의대 교무부학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이식학회에서 ‘젊은연구자상’을 받았고 대한신장학회 최우수학술상, 서울의대학술상 등도 수상한 바 있다. 취임식은 6월 12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교육·퍼즐

에듀윌

늘어나는 주택관리사 수요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주택관리사 ‘마지막 절대평가’...올해 안에 합격이 답이다!

주택관리사(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전문직이다. 본 자격증으로 취직하게 되면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 시설을 유지하는 등 입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설치 혹은 중앙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만큼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요구될 전망이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경우 정년 없는 자격증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채용 시장에서 평생직장 개념이 점차 사라짐에 따라 전문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선호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관리사의 담당업무는 공동주택관련 행정업무와 기술 업무가 주를 이루는 만큼, 젊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연륜 있는 취득자가 취업 시 더욱 유리하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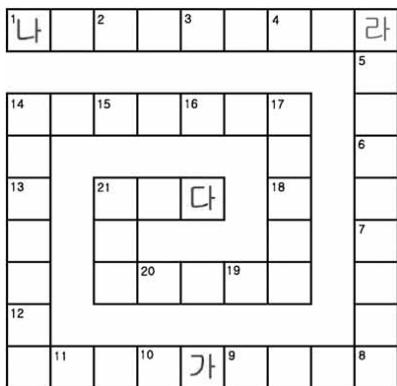


평가 시험인 것이다. 따라서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준비를 이미 시작한 수험생이라면 올해 안에 합격하는 편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이와 관련해 에듀윌은 올해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에 반드시 합격하려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2차 하이패스 특강’을 마련했다. 에듀윌은 본 특강을 통해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주관식·도표·계산 위주의 취약 영역과 함께 출제 예상 필수 이론을 정리하는 등 확실한 2차 시험 합격을 위한 비법을 낱알이 전수할 예정이다. 빈출 유형 기출문제 분석도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이 내년보다 더 상대평가로 전환된다. 올해까지가 ‘마지막’ 절대

■ 낱말문제



01. 사람이 걸려들게 만든 수단이나 술책. ‘ㅇ가ㅇ’ 02.이상(理想)으로서 그리는 미래의 모습. 03.사철 내내 잎이 푸른 나무. 04.야구에서, 타율이 가장 좋은 타자. 05.겨드랑이나 오금 양쪽의 오목한 곳. ‘ㅇ개ㅇ’ 06.미인을 주제로 그린

그림. 07.행동(行動)이나 생각하는 것이 제멋대로임. “ㅇ랑ㅇ자” 08.암술이 같은 그루 안의 꽃으로 부터 화분(花粉)을 받는 일. 09.기계나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살피고 손질하는 일에 종사하는 기사. 10.개인 또는 사법인이 가진 땅. 11.땅속의 토사·암석 따위의 빈틈을 채우고 있는 물. 12.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다스림. 13.주로 여자가 장식으로 손가락에 끼는 두 짝의 고리. 14.땅속으로 만든 길. 15.상관하지 아니하거나 무시함. 16.어떤 시대의 되어가는 모든 형편. 또는 한 시대의 사회상. 17.살물을 보지 않고 추측과 생각으로 그린 그림. 18.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표현하는 말. “ㅇ양면ㅇ” 19.꽃의 액을

짜내어 만든 향수. 20.목숨이 길어오래 삶. 21.쇠가죽에서 벗겨 낸 질긴 고기. ‘ㅇ구ㅇ’

■ 낱말정답

단어 이야기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가.나.다.라를 이어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래 제목이 됩니다.

